

“또 다른 어른들이 선생님들 징계로 아프게 안했으면”

4일 세종시교육청 서이초 교사 49재 참석한 중학생 눈물 ‘호소’ 최고진 교육감 “교사 불이익 있으면 모든 책임 교육감이 질 것”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4일, 세종시교육청에 1층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모인 일부 교사와 학생 눈가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추모제에 교복을 입고 참석한 중학생은 “선생님이 당했을 고통과 스트레스가 오죽했으면, 힘든 선택을 하셨는지 저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은 알 것 같다”며 “오늘 다른 곳에서 추모제 참석 선생님들을 또 다른 어른들(교육부)이 징계하는 등 아프게 한다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A씨는 “아이와 함께 돌아가신 선생님께 꽃이라도 올려 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찾게 됐다”며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지 오래됐고, 이를 방지해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주범은 정부다”고 주장했다.

교사 B씨는 “교육부, 징계 일마든지 해라. 무섭지 않고 인간으로 돌아가신 동료 교사

에 대해 할 수 있는 극히 작은 한 부분이다”며 “우리는 오늘 교사가 아닌 인간으로서 도와 마지막 책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진 세종시교육감은 “슬픔과 안타까움은 살아 있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새겨져 있다”며 “이토록 슬퍼하는 까닭은 아름다워야 할 삶을 스스로 마친 선생님에게 한없이 미안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안타까운 이유는 그동안 교육 현장의 모순을 오롯이 개인이 감내하도록 내뿜은 분노와 회한이 있기 때문이다”며 “교사가 무너지면 학생이 무너지고, 학생이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면 사회공동체가 무너지는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주체들의 견고한 관계 위에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지키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심의 세종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종시교육청은 4일 서이초 교사 49재 관련, 임시 휴업일 학교를 지원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31일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필요 인력을 파악한 뒤 장학사, 연구사, 파견교사 46명을 관내 11개 학교에 배치했다. 지원 인력은 교사를 대신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의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달 29일, 최고진 세종시교육감은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를 위한 재량 휴업 관련 “교사의 불이익이 있으면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질 것이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4일 병가와 연가를 낸 교사 집계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며 “재량



휴업을 한 곳은 8개 초등학교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단에 참여하는 11개 단체들은 4일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행사를 보람동 금강보행교에서 오후 7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오유나기자



공교육 멈춤의 날, 합동수업받는 학생들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맞아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이 진행된 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6학년 4개반 학생들이 학년 통합 과학수업을 받고 있다.

‘쟁의 잠정 중단’ 광주시립2요양병원 노동조합 “거듭 병원 정상화 촉구”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 잠정 중단은 시의 대책 마련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며 거듭 병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지부는 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오전 7시 30분부터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시는 같은 달 29일 ‘근로자 근무형태·병원 정상화 운영계획’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영권 보호’라며 병원 운영에 개입할 수 없었던 시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잠정중단은 전면 파업 철회가 아닌 상황으로 안정적 근로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추후 쟁의행위 가능성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 사태의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매우 유감스럽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시가 9월 말까지 시립병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기준과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한 만큼, 노조는 대승적 차원에서 현장으로 돌아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과 노조는 동시에 ‘공공병원 영리화를 막고 지금과 같은 양질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위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단체 협약을 승계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익적자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노조 요구도 수용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다시 쟁의행위가 시작된다면 그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고 역설했다.

시립 제2요양병원을 지난 2013년부터 위탁 운영한 전남대병원은 누적 적자를 이유로 운영 포기 의사를 밝혔고 이후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한 민간의료재단이 물망에 오르자 노조가 거세게 반발, 쟁의에 돌입했다.

이에 시가 현 위탁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과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 간 운영을 연장키로 하고, 운영 손실금은 전액 보전키로 했다. 이달 중에는 새 위탁기관 공모 선정 절차에 나선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